광주·전남 상장기업 "상반기 영업 잘했다"

■ 23개사 총매출·영업이익·순이익 급증

코스피 14개사 총매출 33조원 '한전 효과' 톡톡

행남자기·파루·KPX생명과학 3개사 '흑자전환'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1년 전보다 나아졌다.

2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015사업연도 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코스피 상장기업 14개사의 총 매출액은 33조 3261억원, 영업이익 4조5467억원, 순이익 2조640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상반기 32조2516억원, 2조4337억원, 9829억원에 비해 각각 3.33%, 86.82%, 168.66% 증가했다.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

금호타이어가 2158억원 감소하는 등 8개 사의 매출이 줄었지만, 한전이 1조1337억원 그리고 핵심계열사인 한전KPS가 367억원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규모와 이익면에서 '한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상반기 2조4337억원에서 올해 4조5466억원으로, 2조1129억원이나 증가했다. 비율로는 86.8%의 상승률이다. 당기순이익은 더욱 커 9828억원에서 2조640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도 각각 6.1%, 4.9% 증가했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0.29%포인트 낮아진 196.09%를 기록했다. 코스피에 상장한 14개사 중 11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반면 한화화인케미칼, 대유에이텍, 금호산업 등 3개사는 적자를 유지했거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9개사의 영업실적도 크게 좋아졌다. 9개사 전체 상반기 매출액은 20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억원, 비율로는 11.2%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204억원과 1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7.89%, 54.55% 늘었다. 부채비율은 전년말 대비 2.43%포인트 낮아진 36.2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96.9%)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9개사 가운데 8개사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코아크로스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행남자기와 KPX생명과학, 파루 등 3개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행남자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5억2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억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과 유관기업의 이전으로 상장기업들이 규모와 영업 이익 등 모든 면에서 성장했고,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농협 햅쌀 '드림원' 특판

20일 강남경 농협 전남본부장과 조덕훈 순천시지부장 등이 광주시 수완동 광주유통센터에서 2015년산 햅쌀인 순천농협 '드림원' 특판행사에 참여, 고객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14.55 (-24.83)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2)
▼ 코스닥 656.71 (-13.84)	▼ 환율 (USD) 1185.10원 (-0.20)

한전, 석탄재서 고부가 리튬 추출기술 확보

"국내·외 특허 출원 완료"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로부터 고부가 희소금속인 리튬을 90% 이상 추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내특허 및 국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한전이 개발한 '석탄재 활용 리튬 추출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석탄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석탄재에 함유된 전체 리튬의 90%이상을 추출할 수 있는 고효율 원천 기술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석탄재에서 리튬을 추출해 온 기존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고 추출률도 10%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경우 현재 5700만t 정도가 발전소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으며 매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790여 만t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에 개발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도 95% 이상의 탄산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기술 개발 및 석탄재에 함유된 희토류 금속을 리튬과 함께 동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들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현대 산업에 필수 전략 광물인 리튬 및 희토류 금속을 자체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술을 세계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7월 광주·전남 무역수지 10억달러 흑자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9.4% 감소한 39억달러, 수입은 33.1% 감소한 29억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0.5% 증가한 10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2012년 8월 이후 3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8.5% 감소한 13억1600만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5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4.6% 감소한 8억5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3.8% 감소한 26억6100만달러, 수입은 37.7% 감소한 24억2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3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재개…아직은 평행선

임금피크제·성과금 이견 여전

25일 임시 대의원대회 재논의

전면 파업 나흘째를 맞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20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인 19일 오후 16차 본교섭을 재개했다. 전면 파업 돌입 전날인 지난 10일 본교섭을 가진 데 이어 나흘 만이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철회하고 일시금(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피크제는 추후 논의할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일시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사는 지난해 경영실적, 임단협 등에 대해서도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재개가 불투명하다. 노조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에 대한 논의까지 연기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노조는 오는 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투쟁 방향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4일간 부분 파업(11~14일)과 전면 파업이 이어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곡성·평택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3300여명 중 3000여명이 참여했다. 사측은 공급차질을 막기 위해 관리자와 일반직 근로자 등 350여명을 투입하고 재고 물량까지 동원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80억원, 전면 파업으로 하루 52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을 삭감하고 일시금을 주겠다는 사측의 임금피크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전면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막대해 단 하루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간 집중교섭의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지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됨으로써 회사와 지역경제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노조는 여전히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오산업개발, 각화 현대주택조합 아파트 10월중 분양

(주)지오산업개발이 백운동지역주택조합(백운힐스테이트)를 성공리에 분양한데 이어 각화현대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완료해 10월 중 일반 분양 물량분을 분양한다.

각화동 현대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740세대와 오피스텔 154세대〈조감도〉이며 입지는 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해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 분양가도 타 단지에 비해 저렴해 인기가 좋다.

(주)지오산업개발은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성사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브랜드 건설사의 이름만 빌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 천만원의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며 "또 일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오산업개발은 본촌동 현대지역주택조합도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해 12월 중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융 2억5천만
상가매매
①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 융 4천5백만)
②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 융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14억5천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융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